

국무총리 모두말씀

- 제21차 제주4.3위원회, 7.25(화) 정부서울청사 -

- 먼저,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가움. 천학비재한 사람이 느닷없이 엄청난 일을 떠맡게 되어 아직까지 얼떨떨함.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
 - 그동안 박재승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간위원님들, 정부위원님들 수고를 많이 해주셨음. 특히 멀리 제주에서 와 주신 원희룡 지사님과 위원님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

- 저는 지난달 제주4.3평화재단을 방문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대표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음. 원희룡 지사님과도 여러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바가 있음
 - 그당시 유족들께서 3년여 동안이나 지연된 4.3희생자·유족 결정을 빨리 마무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
 - 오늘은 그동안 미뤄졌던 심의를 매듭짓고 또 필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4.3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음

- 내년은 4.3사건이 발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임
 -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4.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드린 바 있음
 - 그동안 해 온대로 희생자 추가 신고, 암매장 유해 발굴 및 유전자감식 지원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계속함과 아울러서
 - 4.3 70주년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임. 제주와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

- 제주4.3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발족하여 그동안 5차례 신고를 받았고 20여 차례 심의를 했다고 들었음
 - 그동안 4.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